

# 2018년 경찰 3차(12/22)

## 출제경향과 난이도

1) **난이도** : 하하-상상의 9단계로 보면 중하이다. 2018년 시험만 보면 1차가 가장 어려웠고, 3차가 가장 쉬웠다. 1차 시험이 지문이 길고, 심층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고, 2차는 1차보다 지문은 짧았으나, 근현대사 비중이 역대 최고로 높았기에 근현대사 부족한 사람은 당황했을 것이다. 그런데 3차는 문제수준이 2차와 비슷하면서 근현대사가 5문제에 불과했다. )

① **문항분석** : 하 11, 중 7, 상 2

- 최상위권은 95점 이상을 맞았을 것이며, 90점이면 합격선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출제비중**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15:5로 근현대사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 2) 분석

이번 시험은 지엽적인 문제는 없었고, 기본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중요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과하게 지엽적인 것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한 것에 비하여 성적은 좋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요약식으로 한국사를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번 시험은 지엽적인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얼마나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다. 문제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 **한국사 단어장 같은 요약집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 예전처럼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주로 한국사 사건들이 단어처럼 나열된 요약집을 보는 학생들은 공부한 노력에 비하여 성적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다.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5군영, 향전, 좌우합작위원회** 등에 대한 중요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고로 엄청난 단어가 나열된 요약집(요약집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서보다 내용이 더 많은) 같은 것 달달 외우는 방식은 노력대비 효과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1.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봉산 지탑리 | · 서울 암사동 |
| · 양양 오산리 | · 부산 동삼동 |

- ①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 바위그늘, 막집에서 살았다.
- ②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 ③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 ④ 덩이쇠가 생산되어 여러 나라에 공급되었다.

답 : ②

**해설** 제시문의 시대는 신석기시대이다.(지탑리,암사동 동삼동은 신석기 대표적 유적지) 신석기시대에는 ②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오답체크] ①구석기시대 ③청동기 ④철기

난이도 : 하

2. ㉠과 ㉡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의 군사와 벌인 전투에서 전사했다.  
㉡ 비유왕이 눌지마립간과 동맹을 맺었다.

- ①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했다.
- ② 한성이 함락당하고 개로왕이 살해되었다.
- ③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 ④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답 : ③

**해설** ㉠ 4세기 근초고왕 ㉡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의 나제동맹(433년,5세기) → 나제동맹은 장수왕의 평양천도에 위협을 느낀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답은 ③, 고구려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427)

난이도 : 하

3.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었다.
- ②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었다.
- ③ 후기 가야 연맹은 소백산맥 너머 호남 동부 지역까지 권역을 넓혔다.
- ④ 백제 멸망 후 부흥군을 도와 백강 전투를 벌였으나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했다.

답 : ④

**해설** ①②③이 적절하다.

[옳지않은 것] 백강전투는 660년 백제 멸망이후 663년 백강(현재의 금강 부근)에서 벌어진 백제·왜의 연합군과 당·신라의 연합군 사이의 전투이다. 가야연맹은 6세기, 562년 대가야가 신라 진흥왕에게 망하면서, 사라졌기에 이때 등장할 수 없다.

난이도 : 중하

4.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관산성에 쳐들어왔다. 신주(新州)의 군주 김무력이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빠르게 공격하여 왕을 죽였다. -『삼국사기』

- ①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②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 ③ 관동제의 골격을 마련하고 낙랑군·대방군과 공방을 벌였다.
- ④ 화랑도를 통해 양성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다.

답 : ①

**해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왕은 백제왕 성왕이다. 성왕은 ①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오답체크] ②신라 법흥왕 ③백제에서 관동제의 골격을 마련한 것은 고이왕 ④신라 진흥왕

난이도 : 하

5.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나라는 사방 2천 리에 이른다. 주와 현 및 객사와 역참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유취국사』

- ① 대가들의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 가축의 이름을 붙였다.
- ②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왕족과 귀족을 돌무지덧널무덤에 장사지냈다.
- ④ 고구려 유민이 촌장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다.

답 : ④

**해설** 제시문의 나라는 발해이다. 발해는 지방 행정의 중심에는 15부(장; 도독)를 두고 그 아래에 주와 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지방관은 고구려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촌락의 촌장은 고구려인이나 말갈인들로 이루어져 전통적인 말갈 사회의 내부 조직을 그대로 보존해 주었다. ④가 옳다. → ④고구려 유민이 촌장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다.

[오답체크] ①부여 ②옥저 ③신라 마립간 시기

난이도 : 중

6. 각 승려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장이 세속오계를 정하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표문을 작성했다.
- ② 원효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의 정수를 제시했다.
- ③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을 포섭함으로써 화엄종을 억압하고자 했다.
- ④ 지눌이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펼치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이론체계를 제시했다.

답 : ④

**해설** ④가 적절하다. 지눌은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사에서 결사운동을 펼치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이론체계를 제시하여 조계종을 창시하였다.

[오답체크] ①원광의 세속오계, 결사표 ②[화엄일승법계도]는 의상 ③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한 것은 맞지만,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등, 화엄종을 억압하지는 않았다.

난이도 : 중

7.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기에는 광평성, 순군부 등 신라의 관제가 존속되었다.
- ② 상서성에 소속된 6부가 각각 국무를 분담했다.
- ③ 도병마사는 추부라고 불리며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
- ④ 식목도감은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언관의 역할을 맡았다.

답 : ②

**해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로 옳은 것은 ② 상서성에 소속된 6부가 각각 국무를 분담했다.

[오답체크] ①광평성, 순군부 등은 고려 이전 태봉 시기관제로, 왕권은 초기 태봉의 관제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하였다. ③ 추부는 중추원이다. ④식목도감은 법제정과 격식에 대한 임시회의기구였다.(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언관의 역할을 맡은 것은 어사대)

중서문하성 (= 재부)	고려 최고의 정무기관 (수상 : 문하시중)	
	재신	(2품 이상) 백관 통솔, 국가정책 의논·결정
	낭사 (= 간관)	(3품 이하)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그리고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의 기능 담당
상서성	정책집행 담당, 6부 관장 ( 長은 판사)	
		난이도 : 하

8. 밑줄 친 ㉠의 집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위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주상의 자리를 흔들고자 하니 신(臣)                      ㉠ 등이 폐하의 위엄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 빛나게 중흥을 여소서.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으로 나누어 아뢰니다. -『고려사』

- ① 무신정권을 반대하는 김보당, 귀법사 승도의 반란이 일어났다.
- ②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집정부가 만들어졌다.
- ③ 정방이 설치되어 인사 문제가 처리되었다.
- ④ 서방에서 문신들이 숙위하며 정책을 자문했다.

답 : ②

**해설** 제시문의 ㉠은 최충헌이다.(이의민 제거하고 최고집권자에 오름. 10가지 조목은 봉사10조) →최충헌때에 ②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집정부가 만들어졌다.

[오답체크] ①정중부 집권기 ③최우 ④최우

난이도 : 하

9. 공민왕이 펼친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철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복의 땅을 회복했다.
- ③ 사림원을 설치하고 신흥사대부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 ④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신들을 억압했다.

답 : ③

**해설** ①②④가 공민왕의 개혁정치이다.(기철제거 이문소 혁파,쌍성총관부 탈환,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옳지않은 것]③사림원은 충선왕의 개혁기구

난이도 : 하

10. 고려와 몽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 고려가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몰아냈다.
- ㉢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합쳐져 첨의부가 되었다.
- ㉣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쏜 화살을 맞고 살리타가 전사했다.

- ① ㉡-㉢-㉠-㉣
- ② ㉡-㉢-㉣-㉠
- ③ ㉣-㉢-㉠-㉡
- ④ ㉣-㉠-㉢-㉡

답 : ①

해설

㉠강동성전투(몽골과 고려연합으로 거란 격퇴)-㉡살리타 전사(몽골2차 침입) -㉢개경환도(1270)-㉣원간섭기(총렬왕)

난이도 : 하

11. 조선 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
- ②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
- ③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삼강오륜을 어긴 것을 강상죄라 하여 중대 범죄로 취급하였다.
- ④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과 명의 형법 규정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답 : ②

해설

①③④가 옳다. (조선시대에는 중앙이나 지방 관리가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 아전,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 부민고소금지법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는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

[옳지않은 것] ② 양인과 천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달랐다. 노비가 양인을 구타하거나 살상한 경우는 같은 노비끼리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였고, 양반의 경우에는 형법 적용에서도 체형은 노비가 대신하였다.  
㉠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에 ①번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비슷한 예로 과거응시를 들수 있다. 과거는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얼차대법 등으로 인하여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자제, 가부장적 영향으로 재혼한 여성 자손이나 서얼에겐 응시자격이 없었다.

난이도 : 중

12. 조선 후기 설치된 5군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652년 남한산성에 금위영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제진을 경비케 하였다.
- ② 1682년 서울에 총포병과 기병을 위주로 한 정예부대인 수어청을 두었다.
- ③ 1624년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하고 경기 내의 군인을 여기에 소속시켜 경기 지역의 제진을 통솔케 하였다.
- ④ 1626년 도성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어영청을 설치함으로써 임란 중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5군영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답 : ③

해설

③이 옳다.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담당지역은 경기 일대이다.)

[오답체크] ①남한산성에 둔 것은 수어청이다. (금위영은 왕실,수도 방어) ②서울에 총포병을 중심으로 둔 것은 훈련도감이 다. (수어청은 남한산성 중심으로 구성) ④금위영이 설치됨으로서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설치 시기	방어담당지역	특징		경제 기반
훈련도감	선조	수도	삼수병	급료병(용병)	삼수미세(2.2두)
어영청	인조	수도	효종 때 북벌운동의 본영	번상병	보인
총융청		경기 일대	북한산성 중심	속오군	자기부담
수어청		광주 및 부근	남한산성 중심	속오군	자기부담
금위영	숙종	왕실(수도)		번상병	보인

난이도 : 상

1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석을 세운 왕의 치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되어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 ① 『주자서절요』                      ② 『국조오례의』
- ③ 『동국병감』                        ④ 『동국문헌비고』

답 : ④

**해설** 제시문은 영조가 성균관에 세운 탕평비 내용이다. 영조 때 최초의 관찬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였다.

[오답체크] ①주자서절요 ( 명종때 이황) ②국조오례의(성종) ③동국병감(문종)

난이도 : 하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다.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이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서로 투쟁이 끊이지 않고 모함하는 일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드디어 풍속이 도에서 가장 나빠졌다. -정약용, 『목민심서』

- ① 위 자료에서 교파는 구향을, 약파는 신향을 가리킨다.
- ② 향회를 통해 향촌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지배하였던 기존의 사족들을 구향이라고 하였다.
- ③ 신향들은 지금까지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구향들과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이를 ‘향전’이라 한다.
- ④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일부 부농층은 사족들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였으며,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성장한 이들을 신향이라 한다.

답 : ①

**해설** 적절한 것은 ②③④이다. (기존사족은 구향, 구향과 신향의 경쟁인 향전, 새롭게 성장한 신향)

[옳지않은 것]① 향교에 다니는 교파는 신향들이다. (조선후기 되면 양반의 자제들은 모두 서원으로 가고, 향교에는 평민의 자제들만이 다니고 있었다. )

난이도 : 중

15. 다음은 조선 시대 편찬·간행된 책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한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 지리서의 편찬이 추진되어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을 간행하였다.  
㉣ 각 군현의 위치와 역사, 면적, 인구, 특산물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완성하였다.

- ① ㉠-㉡-㉢-㉣                              ② ㉠-㉡-㉣-㉢
- ③ ㉡-㉠-㉢-㉣                              ④ ㉡-㉠-㉣-㉢

답 : ③

**해설** ㉡신찬팔도지리지(세종)-㉠고려사절요(문종, 고려사 보충)-㉢동국통감(성종때 서거정 등)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성종때 동국여지승람 보완)

[참고] 조선전기 지리서

15세기	신찬팔도지리지(세종)	- 조선왕조 최초의 지리서(현존×) - 전국 8도의 지리, 역사, 정치, 사회, 경제, 교통 등 수록
	세종실록지리지(단종)	단군의 건국이야기와 독도 등 기록
	동국여지승람(성종)	강희맹, 노사신 등이 편찬 군현의 연혁, 인물, 풍속 자세히 수록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동국여지승람」을 중종 때 보완하여 편찬 포함되어있는 「8도 총도」에는 독도 기록
		난이도 : 중상

16. 다음 자료는 어떤 조약의 일부이다. 이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조.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격히 심문하여 엄하게 징벌한다.  
 4조.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5조.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6조. 조선국은 사신을 특파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 ①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사건 이후에도 청은 조선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었다.
- ② 이 조약의 제5조에는 공사관 경비를 위해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비용은 조선에 부담시켰다.
- ③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군의 한성 주둔으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 ④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청·일 양국은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상대국에 서로 알릴 것 등을 약속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다.

답 : ④

**해설** 제시문은 임오군란이후 조선과 일본사이에 체결한 제물포 조약으로 ①②③이 옳다.( 임오군란 이후 청 계속 주둔, 일본은 공사관 경비병 주둔, 갑신정변 때 청군과 일본 공사관경비병 충돌을 막고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옳지않은 것]④는 갑신정변 후 청·일 양국 사이에 맺어진 텐진조약이다.

난이도 : 하

17.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조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은 메가타를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오랜 기간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 ① 한·일 의정서                      ② 제1차 한·일 협약
- ③ 제2차 한·일 협약                ④ 한·일 신협약

답 : ②

**해설**

[참조] 러일전쟁 이후 조약들

러일전쟁(1904) : 일본해군이 러시아함대 공격  
(일본은 러일전쟁 발발 직후 한일의정서 강요0

1차 한일협약(1904.8)	고문정치 : 재정고문 - 메가다, 외교고문 - 스티븐슨, 내정간섭 강화 러·일전쟁 일본 승리(1905) → 포츠머스조약(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 인정)
2차 한일협약 (= 을사조약, 1905.11)	① 외교권 박탈 :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 ② 통감정치 : 통감부 설치, 각지에 일본관리 임명하여 내정간섭(초대통감 : 이토히로부미)
고종황제 강제 퇴위(1907) - 헤이그특사 파견을 구실로!	
한일신협약 (= 정미7조약, 1907)	① 차관정치 : 일본인 차관 임명(내정 장악) ② 통감권 강화 * 군대해산(1907.8) : 시위대 대장 박승환 자결, 해산된 군인일부가 의병에 가담
한일병합(1910.8.29)	대한제국의 국가주권 소멸 → 일본식민지로 전락, 조선총독부 설치

난이도 : 하

18. 다음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일본과 미국이 극동의 평화를 구실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 ㉡ 일본이 과도한 차관을 들여와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대구에서 국민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채를 갚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 ㉢ 만주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동과 봉천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 ① ㉠-㉡-㉢    ② ㉡-㉠-㉢
- ③ ㉠-㉢-㉡    ④ ㉡-㉢-㉠

답 : ①

해설 ㉠ 러일전쟁중 (1905년) -㉡국채보상운동(1907) -㉢간도협약 (1909)

난이도 : 하

19.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가장 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한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① 신채호는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 혁명 선언’을 지어 의열단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 ②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공화 정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한 대한 광복회가 결성되었다.
- ③ 백정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하여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모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④ 국내외의 독립 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렸다.

답 : ②

<b>해설</b> 제시문은 천도교 인물 소파 방정환이 주동이 되어서 발표된 '소년운동선언'이다.(1923년. 문화통치기) → ①③④가 1920년대 사실들이다. -조선혁명선언(1923,1919년 설립된 의열단 지도자 김원봉의 부탁으로 신채호가 작성) 조선형평사(1923) 국민대표회의(1923) [옳지않은 것]②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단체이다. (1915년 경상도)	
2018년 경찰3차	난이도 : 중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원회가 발표한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도파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였다.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군정도 이를 지원하였다. 이들은 1946년 7월 하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10월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①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 ②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 ③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여 실시하게 한다.
- ④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b>답 : ③</b>	
<b>해설</b> 제시문은 좌우합작 위원회가 발표한 7원칙의 내용을 묻는 것이다. ①②④가 옳다. [옳지않은 것]③ 친일파 처리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한다. [ 참고 ] 좌우합작 7원칙(요약)	
1.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 결정에 의해 좌우합작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 발표 3. 몰수·유(有)조건 몰수 등으로 농민에게 토지 무상 분여 및 중요 산업 국유화 4.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리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할 것 5.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의 구성방법 및 운영 등은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 적극 실행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2018년 경찰3차	난이도 : 상